

2004 학년도

碩士學位 請求論文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ical Reformed Confession

-16, 17세기 신앙고백서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南東明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ical Reformed Confession
-16, 17세기 신앙고백서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 이은선 教授

本 論文을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2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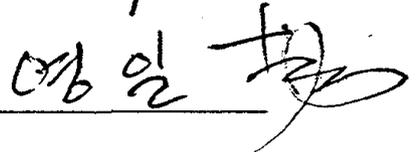
牧會學科 牧會學專攻

南 東 明

이 논문을 남동명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4년 12월 9일

주심 이 은진 

부심 리 영일 

위원 장 화선 H.S. Chang

위원 이 은진 Seon

위원 _____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4
제2장 본론-----	5
제1절 에큐메니컬 신조-----	5
(1)사도신조-----	6
(2)니케아신경-----	8
(3)칼케돈신조-----	9
(4)아다나시우스신조-----	10
(5)에큐메니컬 신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2
제2절 16세기 신앙고백과 그 특징-----	14
(1)16세기 신앙고백서의 조직신학적 구성-----	14
(2)삼위일체 존재론적 구조와 신적 작정을 배경으로 한 고백-----	19
(3)구원의 서정-----	23
(㉞)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루터주의의 견해-----	25
(㉟)로마 카톨릭의 견해-----	26
(㊱)개혁주의의 입장-----	27
(4)16세기 신앙고백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 그리고 카톨릭에 대한 비판의식-----	28
(5)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객관성의 원리로서 ‘오직성경’(sola Scriptura)와 ‘전체성경’(tota Scriptura)---	32
제3절 17세기 신조와 그 특징-----	33

(1)17세기 신앙 고백서의 특징(작성 배경과 관련하여)-----	33
(가)도르트 총회-----	34
(나)웨스트민스터 총회-----	36
(2)조직신학적 구조-----	37
(3)삼위일체 존재론적 구조속에 ‘예정’의 강조-----	41
(4)구원의 서정-----	42
제4절 16, 7세기 신앙 고백의 연속성과 통일성 그리고 독특성--	44
(1)연속성과 통일성-----	44
(2)16, 7세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의 차이점-----	45
제3장 결론-----	46
제1절 본론에 대한 요약-----	46
제2절 실천적 의미-----	47
제4장 참고문헌-----	5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교회에서 교육되지 않고 있으며, 성도들의 관심 역시 올바른 교리교육보다는 프로그램 중심 그리고 바빠진 생활환경에 맞게 신앙생활도 그저 대강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한 결과로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떨어지고, 교리의 부실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고, 이단의 공격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교리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성도들은 내실없는 신앙만 키워가고 있다. 여기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장소라면 곧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착각하여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논자는 다시금 교회¹⁾의 회복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른 신앙교육, 즉 교리교육을 통한 신앙의 내실화가 성도들에게 유익이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지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앙고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연구자는 신앙고백의 내용을 잘 드러내어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한 일환으로 신앙고백의 내용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서정과 관계된 구원론 부분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교회의 객관적인 신앙고백의 채택과 교육은 교회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

1) 가시적 교회.

시기 위해 선물로 만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에서 쉽게 발견하게 된다.

신조의 채택과 교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고 세워 주신 거룩한 질서임을 깨닫게 될 때 이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교회 안에 세우고 드러내는 일과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된다. 따라서 논자는 이러한 역사적 신앙의 유산을 오늘날 잘 드러내어 교회에 소개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일 것이다.

본 논문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묻게 되는 질문은 “이러한 연구가 과연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몇 주간에 걸쳐 교사 대학을 실시하며, 또한 기존의 제직 세미나의 틀을 깨고 신학대학원 교수들을 초청하여 신앙강좌를 하였을 때 볼 수 있었던 성도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본 연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성도들도 이제는 신앙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를 통해 도전 받는다는 것이었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역사적 개혁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의 비교연구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16, 17세기에 나온 신앙고백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6세기 신앙고백은 이전에 있었던 에큐메니컬 신조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신학적 내용과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17세기 신앙고백은 앞선 16세기 신앙고백의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16, 17세기 신앙고백서의 연속성과 통일성 그리고 독특성을 구

원론을 중심으로 살피는데 그 방향을 맞추었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신앙고백』²⁾을 텍스트로 하였고, 이것의 영문판인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³⁾을 참고로 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논문 『개혁과 신조의 역사와 가치연구』⁴⁾를 참고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조직신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구원론에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진행은, 먼저 에큐메니컬 신조를 간략히 살펴보고, 단단한 평가를 통해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신앙고백서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였고, 더 나아가 16, 17세기 신앙고백의 비교를 통한 연속성과 통일성을 살피는 작업과 함께 17세기 신앙고백에 있어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2장 본론

제1절 에큐메니컬 신조의 성격과 구조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우수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연구자는 종교개혁 이전에 나온 에큐메니컬 신조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꼭 자세한 비교가 아니더라도 에큐메

2)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울, 2003.

3) Joel R. Beeke & Sinclair.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Michigan: Baker Book,

4) 신원균, 『개혁과 신조의 역사와 가치연구』, 대신대학원 대학교, 2000.

니컬 신조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배들이 작성한 신앙고백의 우수성은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애큐메니컬 신조를 잠시 언급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겠다.

(1)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은 주지하듯,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신조는 아니다⁵⁾. 그러나 사도들의 교훈에 대한 매우 적합한 대중적 요약이요 신약성경의 정신과는 그 문자에 있어서까지도 잘 조화되는 신조이다.⁶⁾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17)

	1536		1539		1543-1550		1559
2. 믿음		→	4. 믿음:사도신경		5. 믿음:사도신경	→	3권 2장
		→					
→ a.	1부		a. 1부	→	6. 신조 1		1권 13-14장
→ b.	2부		b. 2부	→	7. 신조 2		2권 12-16장
→ c.	3부		c. 3부	→	신조 3	→	3권 1장
→ d.	4부		d. 4부	→	8. 신조 4.	→	3권 25장
					"	→	4권 1-9장
	선택과 예정				"	→	4권 11-12장

5) Philip Schaff는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 “사도신경은 사도의 친저작이 아니라 교회가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Philip Schaff, 『신조학』, 박일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19.

6) Ibid, II, p.17.

7) 신원균, 『개혁과 신조의 역사와 가치연구』, 대신대학원 대학교, 2000, p.22.

바빙크(Herman Bavinck)는 그의 책⁸⁾에서 다음과 같이 사도신경의 역할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1.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조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삼위일체적인 세례명령으로부터 발전되었던 것이다(마 28:19). 근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짧지만 기초형태는 같았다. 즉 그것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 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의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⁹⁾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니케아 공의회 고백(325), 니케아 신조, 칼케톤 공의회 고백, 아타나시우스 신앙고백은 모두 이 사도신경의 보편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한다. ¹⁰⁾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준비단계에서 이것을 해설하여 줌으로써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를 고백케 하였고,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에도 주기도문과 함께 되풀이 사용하였으며, 나중에는 공예배 때에도 사용토록 하였다.¹¹⁾

사도신경의 특징은, 먼저는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며, 또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여 어떤 수준의 사람이건 어떤 예배를 위해서건 다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적 지식이 매우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교리를 규정해줌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8) 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 108.

9) Ibid, p.109.

10) Ibid.

11) Philip Schaff, loc. cit,

로 바빙크가 지적하듯 사도신경은 다른 신조들의 기초 역할을 하였다.

사도신경에 대한 평가는, 칼빈은 사도신경이 성경의 내용과 잘 일치한다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믿음의 요약이요 총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¹²⁾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 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¹³⁾

햇지(A.A.Hodge)는 영국에서는 소요리문답을 처음 출판했을 때 주기도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첨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들이 작성했다거나, 성경의 일부분으로 여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리스도의 고대 교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첨부했다고 한다.¹⁴⁾

(2)니케아 신경(The Nicene Creed)

니케아 신조의 작성배경은,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 곧 성자는 지으신 일종의 피조물로서 시작이 있었고 따라서 한 때 그는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성육신 신앙에 위배되는 것임을 아다나시우스(Athanasius)가 지적하고 아리우스와 논쟁을 하게 되면서이다. 이 논쟁은 자유를 얻기 시작한 기독교의 통일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콘스탄틴 황제는 325년에 세계교회 회의를 니케아(Nicaea)에 소집하여

1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p.114. 이하 “기독교 강요(초판)이라” 약칭함.

13) 기독교 강요 上, p. 724.

14) A.A.Hodg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p.15.

이때까지 이론이 많았던 기독교론의 교리를 확정하여 올바른 신앙고백을 제정 하기에 이른 것이다.¹⁵⁾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는 점이 비두 니아 니케아에서 주후 325년에 개최되었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성령의 신성과 위격에 관한 구절들은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있는 제2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결정했고, “또 아들에게서(filiopue)라는 구절은 주후 569년에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있는 서방교회의 공의회에서 첨가한 것이다.¹⁶⁾

니케아 신조의 특징은,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Homoousios)**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리하여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 출한다 하였다.¹⁷⁾

바빙크는 니케아 신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A.D 325)에서 오리겐의 종속론(예수님이 성부보다 낮아서 종 속되었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참된 신성(성부와 동일 성)을 고백하였다. 이 고백은 그 성격이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다. 즉,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론적 원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 외에 “서방 교회에서 추가한 조항이 없는 니케아 신조는 회랍교회에서 큰 권위를 인정받아 사도 신경이 라틴교회나 프로테스탄트교회에서 차지하는 것과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¹⁸⁾

15) 신원균, op. cit., p. 26.

16) A.A.Hodge, loc. cit.

17) Luis Borkof,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p.280.

18) 신원균, op. cit., p. 32.

(3)칼케돈신조(The Creed of Chalcedon)

칼케돈신조는 콘스탄티노플회의를 대항하기 위해 주후 451년 칼케돈에서 회집되었던 세계종교회의의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제4차 칼케돈회의는 지상에 임재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성육신하신 로고스에 관한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칼케돈신조는 아리우스의 사상을 반대하고 니케아신조를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네스토리우스(Nestorius)와 유티커스(Eutychus)의 잘못된 사상을 배격하고 있다. 칼케돈신조는 단성론(Monophysites)과 단의론(Monotetics) 논쟁이 아직 격화되기 이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초대교회의 정통적인 기독교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¹⁹⁾

칼케돈 신조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결국 교회는 이 시기에 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 내용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풍성함의 내용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²⁰⁾ 칼케돈회의의 결정 내용은, ①양성의 특성은 일위에 속한다. ②신인의 수난은 참으로 무한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신성은 감각할 수 없다. ③그리스도의 인격의 근거와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인성이 아니고 신성이다. ④로고스는 어떤 독특한 인간 개체와 연합한 것이 아닌, 인성과 연합한 것이다.²¹⁾

벌콕은 칼케돈 신조의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칼케돈 신조는 “양극단의 견해를 전부 정죄하고, 위(인격)의 단일성(unity)과 양성을 함께 주장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지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니

19) Philip Schaff, op. cit., p. 28.

20) 신원균, op. cit., p. 37.

21) Louis Berkhof, op. cit., pp. 524-536.

케아 회의가 삼위일체 논쟁을 끝마치지 못한 것처럼 칼케돈 회의도 기독교론 논쟁의 종결을 짓지 못하였다”.²²⁾

(4) 아다나시우스(Athannasios) 신조

이 신조의 저자는 명확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있다. 왜냐하면 17세기 중엽 이후 기존까지 받아들여졌던, 로마의 감독 아다나시우스(296-373)가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프로테스탄트나 로마카톨릭의 학자들에게 배척 받고 있기 때문이다.²³⁾ 이 신조의 구조는 제1부는 삼위일체론으로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보다 더 분명하게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삼위 사이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종속은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부는 기독교론으로, 아폴리나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 등의 이단설을 반격하고 있다.²⁴⁾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제4차 에큐메니칼 회의 때까지(325-451)의 교리적 결정들과 삼위일체와 성육신에 대한 어거스틴의 사상을 매우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요약하고 있으며, 간결한 문장들은 기술적으로 배열되었고 아름답게 표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²⁵⁾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삼위일체 부분에 있어서는 종속설을 배제하고 있다.

하나님은 삼위를 가진 한 분이시오 각 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지닌 완전한 신이다. 여기서 위라는 용어는 단순히 분장이나 나타나는 형태만을 가리키던 종래의 의미 또는 독립된 존재, 구별된 존재, 개별적 존재를 가리

22) Ibid.

23) Philip Schaff, op. cit., p. 33.

24) 신원균, op. cit., p. 41.

25) Philip Schaff, op. cit., p. 34.

키는 오늘날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벨리안주의를 배격하고 다른 편으로는 삼신론을 배격한다. 신적 위들은 서로가 하나이며, 신적 본체 안에서 영원한 상호 교통과 침투가 이루어진다. 각 위마다 신적 본체 안에 있는 신적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위에 독특한 개별적 특성이나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교환될 수가 없다. 성부는 비발생이지만 성자는 발생되었고, 성령은 발출되었다. 이 삼위 안에서는 시간적으로 우선하거나 종속하는 일이 없고, 지위에 있어서 우월하거나 열등한 일이 없으며, 삼위가 동등하고 똑같이 영원하다.²⁶⁾

둘째 부분에서,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그리스도께서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다고 함으로써, 인성의 범위를 단지 동물적 영을 가진 육체에 국한시킨 채 그 안에서 신적로고스가 거주하셨다고 하는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르침으로써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커스 또는 단성론의 이단들을 배격하고 본질적으로 칼케돈신조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²⁷⁾

필립 샤프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에 대한 평가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제3차와 제4차 세계교회회의는 니케아신조 이외에 다른 신조를 작성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범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아 ‘정통 교리의 아버지’란 찬란한 이름을 얻었다.”²⁸⁾ 한편, 본 신조는 역사적 장로교회에서 늘 정통적인 교회의 신조로서 인정을 받았고 현재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5)에큐메니컬신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26) Philip Schaff, op. cit., p. 35.

27) Ibid.

28) Philip Schaff, op. cit., p. 33.

에큐메니컬신조는 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그 주된 내용이
라 할 수 있다²⁹⁾.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시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경우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성령, 거룩한 공회인 교회와 죄사함, 부활
에 대해 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개혁 이전에 나온 신앙고백서들의 경우 대부분 단순하고 간결하여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교리들로
만들어 진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고대 신조에 있어서 신조는 진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단을 정
죄하는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불어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
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고대 신조는 대부분 간략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신론이나 기독교론에 거의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시대를 거치며, 성경은 더 이상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손에 쥐어지면서, 또 여러 곳에서 개혁
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교리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성격의 신앙고백의 작성을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29) 기독교 교리는 복음의 중요한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려 했고 개인과 세상의 관계 속에 그
중요한 개념을 두려고 했다. 기독교 교리문서 중 가장 정통한 진술은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
은 “전능하사... 민사오며”로 시작한다.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하나님, 성부,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문맥에 나타난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설명하지 않
고 단지 정의할 뿐이다. 예수님은 성부의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게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에 대해 니케아
신조(325)는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 규정하였고, 그 분과 인류와의 관계는? 칼
케돈 신조(451)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시며 우리와 동일한 본질로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 정의 한다.

Harold O. J. Brown, 『이단과 정통』, 라은성 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01.), 40f)

신앙고백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³⁰⁾ 또한 여러 이단들의 도전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일환으로 신조는 필요했다.³¹⁾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앙 고백의 발전은 종교개혁 이후에 가속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16, 17세기에 그 발전은 대단한 것이었다.

16, 7세기 신앙 고백은, 국가별로 작성되어 고백된 수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어느 시대와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신앙 고백을 살펴본다는 것은 개혁 신앙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제2절 16세기 신앙고백과 그 특징

(1) 조직신학적 구성

종교개혁 이후에 작성된 신앙고백의 형식적인 특징을 살핀다 하면, 조직신학적 구성을 들 수 있다. 종교 개혁 이전 신앙고백은 대부분 주요 논쟁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신론 중심적이고 또한 삼위일체에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종교개혁 이후에 작성된 16세기 개혁주의 신앙고백은, 대표적인 제네바 교리문답서(1542)을 비롯하여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 스코틀랜드

30) 마28:19-20을 근거 구절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1) 신원균, op. cit, pp.16-18.

드 신앙고백서(1561), 벨직 신앙고백(1561),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1563), 제2 스위스 신조(1566)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 조직신학적 구성이 돋보인다 하겠다.

특히, 제네바 교리문답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경우 매 주일 교육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그 밖의 신앙고백서의 경우 매 주일 성경공부를 실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공통적으로 신론부터 시작하여 인간론(죄),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조직신학적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다음의 표는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표132)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제네바 교리문 답	(21-29:하나님 아버지)		(문30-89문:예 수 그리스도	(1-14문:믿음), (88-105문:성 령하나님)(111 -120:참된신앙) (121-127:행위) (128-130:회 개), (131-232: 율법), (233-295 :기도),	(296-332문: 성례전), (333 -339문:유아 세례), (340-3 73문:성찬)	(106-11 0:육신의 부활과 영생), (
프랑스 신앙고 백	1조:하나님 2-5:성경 6:삼위일체	9-11:죄	13-14:예수 그리스도 15-16:그리스	17-21:칭의 22:선행 23-24:의식법	25-28:교회 29-33:교회 정치	

32) 위의 표는 연구자가 표제를 근거로 편의상 작성한 것이다.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한 가지 표제아래 중복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혹 분류에 없다하여 그 내용이 신앙고백에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이다. 때문에 각 각의 신앙 고백은 조직신학적 내용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밝히며 이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7:창조 8:섭리 12:예정		도의 신성과 인성	/도덕법/율법 의 제3용법	34-35:성례 36-38성찬 39-40:국가	
스코틀 랜드 신앙고 백	1조:하나님 2:인간의 창조	3:원죄	6: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7:왜 중보자, 화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 9: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그리고 장사 10:부활 11:승천	4:약속의 계시에 관하여 8:선택에 관하여 12:성령의 신앙에 관하여 13:선한 행위의 원인에 14: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15:율법의 완전과 인간의 불완전	5:교회의 지속과 증가와 보존 16:교회 17: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 20:총회 21-23:성례 24:국가 공직 25:교회예주 신 은사	17:영혼 불멸
벨직 신앙고 백	1장:유일하신 하나님 2:일반계시와 특별계시 3:성경 4:정경인 하나님의 말씀 5:하나님의 말씀의 신성과 권위의 근거 6:정경과 외경	14:인간 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의 인간의	10: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 11: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19: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양성의 연합과	11:성령은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 16:영원한 선택 17:타락한 인간의 회복 21: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27:보편적인 기독교 교회 28: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교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29:참 교회의 특징 및 거짓 교회와의 차이점	37:최후 심판

	<p>또는 위경의 차이점</p> <p>7: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서 성경의 충족성</p> <p>8: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나 세 인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심</p> <p>9:한 분 하나님의 삼위 인격 되심에 관한 전장의 증거</p> <p>12:만물의 창조, 특히 천사들의 창조</p> <p>13:섭리</p>	<p>무능력</p> <p>15:원죄</p>	<p>구별</p> <p>20: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심</p> <p>26:그리스도의 중보자되심</p>	<p>그리스도의 속죄</p> <p>22:믿음을 통한 칭의</p> <p>23:의롭다 함을 얻는 조건</p> <p>24:성화와 선행</p> <p>25:의식법의 폐기</p>	<p>30:교회 행정과 그 직무에 대하여</p> <p>31: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p> <p>32:교회의 질서와 가르침</p> <p>33:성례</p> <p>34:세례</p> <p>35:성만찬</p> <p>36:정부</p>	
<p>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p>	<p>26:28:하나님 아버지</p>	<p>3-11문: 인간의 비참</p>	<p>29-52:하나님의 아들</p>	<p>12-25:인간의 구원</p> <p>53-64:성령 하나님</p> <p>86-91:선행</p> <p>92-115:십계명</p> <p>116-129:기도</p>	<p>65-68:거룩한 성례</p> <p>69-74:거룩한 세례</p> <p>75-85:거룩한 성만찬</p>	

<p>제2스 위스 신앙고 백</p>	<p>제1장: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성경 3:하나님, 그의 통일성과 삼위일체에 6:섭리 7:만물의 창조, 천사와 마귀와 사람의 창조 10:하나님의 예정과 믿는 성도들의 선택</p>	<p>8:인간 의 타락과 죄와 죄의 원인 9:자유 의지와 인간의 능력</p>	<p>11:예수 그리스도, 곧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p>	<p>12:하나님의 율법 13: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속들과 성령과 문자 14:회개와 회심 15:신자의 참된 칭의 16:믿음과 선행, 선행에 따르는 보상, 그리고 공로</p>	<p>5:예배의 기원 17: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와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 18:교회의 교역자들, 이들의 제정 및 이들의 의무 19:그리스도 의 교회의 성례전 20:거룩한 세례 21:주님의 거룩한 성찬 22:교회의 집회 23:교회의 기도와 찬송과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24:거룩한 날들과</p>	<p>26:믿는 자의 매장과 죽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연옥과 영들의 현현</p>
---------------------------------	---	--	---	--	--	--

					금식들과 음식들의 선택 25:세례받을 사람의 교육과 환자의 위로와 심방 27:의식들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28:교회의 소유물에 관하여 29:독신과 결혼과 가정문제의 경영관리 30:국가공직	
--	--	--	--	--	--	--

위의 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네바 요리문답의 경우 인간론 부분이 없다하여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각주 36을 참고하기 바란다.

(3)삼위일체 존재론적 구조와 신적 작정을 배경으로 한 고백

종교개혁 이후에 작성된 신앙고백의 공통된 내용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들 신앙고백이 삼위일체 존재론적 구조가 그 바탕에 깔려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모든 신앙고백서의 시작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네바 요리문답)

1문 :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9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이신데 당신은 왜 아버지(성부), 아들(성자), 성령(성령)을 말하고 있습니까?(삼위:三位)

답: 우리는 단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만물의 시작, 기원 그리고 제일 원인이신 아버지와 영원한 지혜이신 아들과 모든 피조물 위에 부여하시는 하나 언제나 당신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신 성령님을 고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신앙고백)

제1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단 한 분만 계시며, 그는 영적이며, 영원하며, 보이지 않으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추월하시며, 말로써 다 형용할 수 없으며 전능한 단 하나의 단순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며, 가장 정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고 고백한다.

제6조. (삼위일체)

성경의 책들은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의 단순한 거룩한 본질이시며 곧 삼위(三位)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음을 가르친다. 성부는 만물의 최초의 원인이며 원리이며 기원이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며 영원한 지혜이다. 성령은 성부의 덕력(德力)이며 능력이며 효능이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부터 탄생하신 분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이 삼위(三位)는 혼동되지 않고 구별이 있되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

며 영원성과 능력이 평등하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옛날의 회의들이 제정한 것을 고백하며, 성 힐라리(Hilary), 성 아다나시우스, 성 키릴(Cyril)과 같은 교부들이 배척한 모든 종파들과 이단들을 기피한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조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그에게만 의뢰하며 섬기며 그만을 예배하며 그만을 믿는다.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가해, 전능 및 불가시하신 분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三位)로 구별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써 지배하시며, 그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영원한 지혜, 선, 정의로 정하신 것을 고백한다(창1:1; 행17:28; 잠16:4)

제12조 성령의 신앙에 관하여

우리의 이 신앙과 신앙의 확신은 육과 혈, 즉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 성령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 그대로는 죽는 자이며 눈이 어두우며 강팍하기 때문에 만일 주 예수의 성령이 죽은 자를 되살리시며 우리 마음에서 암흑을 제거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복종하도록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쳐부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려도 느끼지 못하며 빛이 드러나도 보지 못하며 계시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 하시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이처럼 우리는 또한 성령이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성화 시키시고 중생 시켰음을 고백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창조와 속죄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도 그 어떤 영광이나 영예도 쫓아 포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선량한 생각을 한 가지도 못하며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의 과분한 은혜의 영광과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장.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그 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요, 영적인 존재자이심과 또한 그 분은 영원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며 불가시적이며 불변하신 분이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지혜는 완전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선의 넘치는 근원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바이다.

제8장.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나 세 인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심\

우리는 진리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본질에 있어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동시에 그분은 곧 공유할 수 없는 바 인격적이시며 참되시며 진리되신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신 삼위(三位),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심을 믿는다. 성부는 원인과 근원이 되시고 모든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며, 성자는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시며, 성령은 영원한 능력과 힘이 되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기인하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분에 의하여 나뉘어지는 분이 아니신데,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의 인격성을 가지시고 그 특성에 의하여 구별되기는 하나, 이 세 인격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신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부도 아니시며 성자도 아니심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구별된 인격은 나뉘어지거나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성부나 성령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고 다만 성자만이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다. 성부는 성자 없이는 계시지 않았고 또한 성령 없이 존재하지도 않으셨다.

이 삼위(三位)는 영원하심과 그 본질에 있어서 공유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 처음이고 어떤 분이 나중에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삼위는 진리와 능력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문 :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답 :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제 53문 :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 :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신앙고백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삼위 일체의 존재론적 구조의 성격과 그 내용이 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밖에 모든 섭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을 통해 풀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구원의 서정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고백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루터의 ‘이신칭의’의 발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루터교인들은 믿음을 통한 칭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제시하므로 우리와는 다르게 전개된다. 한편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칭의를 가르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구원의 서정에 관한 교리는 종교 개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³³⁾

16세기 신앙고백은 로마교회의 트레트회의 표준문서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고, 따라서 대부분 신학적이고 논쟁적이다. 또 교황주의와 극한 대립의 결과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³⁴⁾

여기에는 주관적인 기독교, 즉 구원의 개인적인 적용을 말하고 있다. 또한 신앙의 규범, 이신칭의, 신앙과 선행의 성격과 직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들이 해당된다. 역사적 개혁주의 신조들은 성경적 원리나 이신칭의 사상과 맞지 않은 로마교회의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다. 교황제도, 미사의식, 화체설, 연옥설, 면죄부, 공로교리, 성자나 형상 또는 성혼숭배사상은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³⁵⁾

여기서 연구자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을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의

33) 별콧은 그의 교의학 구원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의 순서에 관한 교리는 종교 개혁의 산물이다. 이와 유사한 어떤 것도 스콜라 철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종교 개혁 이전의 신학에서는 구원론 자체가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구원론은 하나의 구별된 항목을 구성하지 못하고 그 구성 요소들은 다른 제목하에 상이한 항목들에서 논의되었다. 피터 롬바르드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저명한 스콜라 신학자들도 성육신에 관한 논의에서 교회론과 성례론으로 곧바로 넘어간다. 이들에 있어서 구원론은 신앙론과 회심론 등 단지 2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선행에 관한 부분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신앙관, 회심과, 선행관을 비판하고 이를 대치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혁자들의 관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원과 전개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Louis Berkhof, op. cit., pp. 661-662.

34) P. Schaff, op. cit., p. 59.

35) Ibid, II, p.61.

견해와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더 없이 좋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루터주의의 견해³⁶⁾

루터파는 ‘선택’,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교리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신들의 논의를 출발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죄인의 심령과 삶에서의 구속 사역의 주관적인 실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a parte Dei) 행해지는 것들보다는 인간 편에서(a parte hominis) 행해지는 것들을 더욱 강조하는 구원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신앙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신앙을 인간 편에서의 능동적 원리 즉 인간의 행위로 이해하여 구원의 순서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퍼(Pieper)에 의하면, 루터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케 되었다는 사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사실을 복음 안에서 선포하시며, 인간이 죄의 용서를 주관적으로 획득하도록 요청하신다. 이러한 부르심에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조명과 자극이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인간은 성령의 구원하는 활동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회개는 성령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시여하는 중생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36) Louis Berkhof, op. cit., pp. 664-665.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은혜의 언약의 복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동적 관계없이도 체험될 수 있으며, 단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중생은 자신에게 행사되는 감화력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인간의 저항이 점증되거나 감소함에 따라 단번에 혹은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중생 안에서 인간은 믿음을 시여받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객관적으로 주어진 용서 즉 칭의를 획득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순종의 삶의 생동적 원리 즉 갱신과 성화의 영을 받게 된다. 이 모든 복들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믿음-인간 편에서의 능동적 믿음-이 필요하다.

(내)로마 카톨릭의 견해³⁷⁾

이들의 신학에서는 교회론이 구원의 순서에 대한 논의 보다 선행된다. 어린 아이들은 영세에 의해 중생되지만, 성년이 되어서 비로소 복음에 접한 사람들은 마음을 조명하고 의지를 강화시키는 “충족은혜”(gratia sufficiens)를 받게 된다. 인간은 충족 은혜에 저항할 수도 있고 혹은 이에 동의할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이 은혜에 동의하면 이 은혜는 “협력은혜”(gratia co-operans)로 변환되며, 이로써 인간은 칭의를 예비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칭의에 대한 예비 과정은, ①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함, ②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자각함, ③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함, ④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함, ⑤죄를 혐오함, ⑥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함, ⑦영세를 희망함.

37) Ibid.

여기서 믿음은 단지 예비과정들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신앙이란 단지 교회의 교리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며(fides informis), 주입된 은혜(gratia infusa)에 의해 부여된 사랑을 통해서만(fides caritate formata) 칭의의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칭의는 값없이 주어지며, 선행된 예비 과정에 의해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칭의의 은사는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함으로써 보존된다. 주입된 은혜에 이해서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차후의 모든 은혜와 합당한 공로-실제적 공로(meritum de condigno)-를 이룰 수 있는 초 자연적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에게 구원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의 용서를 계속 보유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칭의의 은사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중죄로 인해 상실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획득될 수 있다.

(대)개혁주의의 입장³⁸⁾

개혁과 신학의 구원의 순서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지위, 즉 율법과의 관계에 의존하며,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근거로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개혁 교회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언약(pactum salutis)에서 성립된 신비적 연합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 구원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영원히 전가된다.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의 순서를 중생 혹은 부르심에서 시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적용이 초기부터 하나님의 사역이라

38) Louis Berkhof, op. cit., p. 662.

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신칭의 다음에는 회심, 여기에 회개와 믿음이 포함된다. 믿음은 칭의를 중개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논의는 칭의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칭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며, 양자됨의 은사를 수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복종을 야기시키고, 인간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하므로, 칭의 다음에는 성화에 대한 논의가 고찰된다.

㉞16세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구원에 서정 그리고 카톨릭에 대한 비판의식

우리는 16세기 신앙고백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구원의 서정의 내용과 함께 카톨릭의 구원관에 대한 배경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의 내용을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줄 것이다.

표2³⁹⁾

구분	신앙 고백 내용	카톨릭 배경 내용
프랑스 신앙고백	제17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고 완전하게 되었으며,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오직 그의 공로로써만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과로부터 구제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제18조. 우리는 시편 시인이 말한대로(시32:2)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 죄의 용서에 달렸으며 우리의 유일한 축복도 또한 거기에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리 의롭게 되는 모든 방법을 거부하며, 어떠한 선행과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우리	인간의 공로사상 배경 / 믿음 이외의

39) 편의상 문답식 신앙고백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16세기 신앙고백이 신론 중심적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표2는 구원론의 내용만을 편의상 요약하였다.

	<p>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은혜와 선의를 발견할 수 있게 우리에게 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단순히 의지한다....</p> <p>제19조. 우리는 이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써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기도할 자유와 특권을 갖는다고 믿는다....</p> <p>제20조...<u>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는다...이렇듯 믿음을 통한 우리의 의인됨은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 자유로운 약속(말씀)에 달린 것이다.</u></p> <p>제21조. 우리는 성령의 신비한 힘으로 믿음 안에서 조명을 받았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고마운 특별한 은사이어서 선택된 사람이 영광을 받을 이유는 없고...우리는 또한 믿음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계속 가지도록 하시는 것으로 믿는다(견인)....</p> <p>제22조.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한 일을 결심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들은 그의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의인을 위하여 공을 세운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선행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채택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아니니,...</p> <p>제23조...<u>비록 그 의식들은 이제는 더 사용되지 않지만 그것들의 실체와 진리는 그것들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다고 고백한다.</u>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기 위함과....</p> <p>제24조...<u>죽은 신도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u>에 관한 착상은 불합리하며 <u>예배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유도하는 사탄의 생각</u>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 <u>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다른 방법</u>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해치는 것이므로 배격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u>연옥이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착각으로 생각하며, 거기에서 또한 수도원의 서약, 성지순례, 성직자의 결혼금지, 육식금지, 특정 제일(祭日)들(성일<聖日>들=부활절 및 성탄절 등)을 지키는 의식들, 고백제도, 면죄부 그리고 사죄와 구원을 얻는 공적</u>을 세우려는 <u>그 밖의 모든 것들이 생겼다.</u>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격하는 까닭은 그것들에 부착되어 있는 공로사상만이 아니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멩에를 매우는 인간의 발명이기 때문이다.</p>	<p>방법에 대해 거절 / 제한속죄 / 죽은자를 위한 기도 비판 / 연옥교리 비판 / 고해성사 / 면죄부 등 사죄 받기 위한 모든 인위적 행동 배격</p>
스코틀랜드	제8조(선택에 관하여).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	성상숭배 배격

드 신앙 고백	<p>세 이전부터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영혼의 위대한 감독으로 정하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p> <p>제12조(성령의 신앙에 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 성령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처럼 우리는 또한 성령이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성화 시키시고 중생 시켰음을 고백한다. ...즉 우리는 창조와 속죄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도 그 어떤 영광이나 영예도 께히 포기하고자 한다.</p> <p>제13조(선한 행위의 원인에 관하여). 선한 행위의 원인에 관하여 우리는 그것이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있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성화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는다. ... 그리하여 그들이 전에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전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된다. ...</p> <p>제14조(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다른 하나는 이웃 삶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다.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멸하는 일, 우상을 갖는 일, 혹은 그 것을 예배하고 우상숭배를 지키며 그것을 변호하는 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생각하는 일이 적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더럽히며 남용하며 경시하는 일, ...그러므로 율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만이 선한 행위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반대로, 악한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게 행하는 일일뿐더러 신앙과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인 발견과 고안 이외에 아무런 확신도 없이 행하는 일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p> <p>제15조(율법의 완전과 인간의 불완전에 관하여).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에 대한 복종이 요청되는 것이며 또 지금도, 또 장래에도 요청 될 것이다(율법 제3용법).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행했을 때 겸손하게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행위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공적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헛된 것을 자랑하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에 신뢰하는 것이다.</p>	/ 거짓성 레 / 예배에 있어서 인위적인 요소 배격
벨직 신앙 고백	22장(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밝히 보여주심을 믿는데, ...따라서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그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협력은 해 배격 /

<p>주장하는 사람은 엄청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절반의 구원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또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마땅히 하는 바이다. 그러나 좀더 분명히 말해서, 믿음이란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지 하나의 방편일 뿐이요, 이 방편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므로...따라서 믿음이란 그의 모든 공로 안에서 우리를 그와 교통하도록 해주는 도구인데...</p> <p>제23장(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조건).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셨음으로 되어짐을 믿는데,...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행위와는 관계없이 의를 심어 주셨다...그런 고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자신을 그 분 앞에서 낮추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늘 인식하며 이 은혜의 기초를 항상 굳게 붙잡고 나갈 것인데,...</p> <p>제24장(인간의 성화와 선행).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참된 신앙이 인간을 중생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행(先行)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선할 수 없는데,...</p>	은혜의 주입 배격 /
---	----------------------

표2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로마카톨릭의 ‘은혜의 주입’이나 ‘충족은혜’, ‘예배시 인위적인 방식의 도입’,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공로사상’, ‘미사’, ‘성자숭배’, ‘연옥’, ‘고해성사’, ‘면죄부’ 등의 내용들은 모두 거절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교회력에 의한 성일(부활절, 성탄절) 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지순례⁴⁰⁾까지도 모두 카톨릭적인 것임을 성경적 원리로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적 전통으로 생각하여 답습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얼마나 세심한 주의

40) 물론 카톨릭에서 실시하는 성지순례와 오늘날 개혁신교에서 시행하는 ‘성경지리답사’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는 이들에 있어서 신학적 내용이 없는 이들의 ‘성경지리답사’는 카톨릭이나 모슬렘권에서 행하는 성지순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와 검토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상의 논거에 연구자는 종교개혁 신조들의 객관성의 원리⁴¹⁾로서 ‘오직성경’(sola Scriptura), ‘전체성경’(tota Scriptura)의 원리를 집고자 한다.

(5)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객관성의 원리로서 ‘오직성경’(sola Scriptura)와 ‘전체성경(tota Scriptura)

종교개혁은 성경의 독점적,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고 ‘오직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루터가 ‘이신칭의’ 통해 빛을 보았을 때, 그리고 여러 종교개혁자들⁴²⁾은 이 ‘오직성경’과 ‘전체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신앙고백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신앙고백이 성경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성경에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톨릭의 경우 성경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를 같이 놓았고, 성경의 해석 역시 전통에 의존하고 있음에 반해 종교 개혁자들은 성

41) 필립샤프는 그의 책 『신조학』에서 복음적인 프로테스탄트교회의 교리적인 원리를 로마교회와 비교하면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그는 객관적 원리로서 오직성경을 로마교회의 전통에 대비시키고 있다.

Ibid. II. p. 56.

42) 위클리프의 경우 “종종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연적이라”(esse necessarium, quod sepe una pars scripture exponit aliam)하고 루터의 경우에도 “성경은 그 자체로 해석한다”(scriptura sui ipsius interes)라고 하였으며, 부처의 경우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통하여 해석한다”(das wir schrift durch schrift ußlegen)고 하였으며, 블링거의 경우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석이다”(scripturam sui ipsius esse commentarium)고 하였고, 15세기의 유명한 의학자였던 파라켈수스에게도 “오직 성경 자체로부터 성경해석”(ex scriptura ipsa tantum interpretatio scripturae)이란 정신이 있었으며, 네테스하임의 아그리파(Agrippa von Nettesheim)의 경우 “성경은 그 자체가 충분하여 그 자체로 해석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며 어떤 이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Dieser Heiligen Schrift...sondern es ist dieselbe an sich selbst, sie judiziert alle und wird von niemanden judiziert)고 하였다.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pp.33-34.

경의 가장 바른 해석자를 성경 자체로 놓는다. 따라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거절하는 입장으로 오직 성경이다.

하지만 오직 성경이라 하였을 때, 루터주의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 여기에 개혁주의는 전체성경의 개념을 놓치지 않는다. 루터주의가 '이신칭의'의 내용아래 오직 성경을 말하였을 때, 그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딤후3:16)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서는 어떤 복음도 없다는 의미에서 '오직성경'과 말씀의 가장 바른 해석자로서 '전체성경'의 개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까지 가며, 말씀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의해 성경을 해석해 왔으며, 신앙고백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거나, 성경과 위배되는 교리는 만들지도 않았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물론 개혁자들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신앙고백을 작성하였고, 또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제3절 17세기 신앙고백서

17세기 신앙고백서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제기된 도르트 총회(1618-1619)에서 오랜 논쟁 끝에 얻게 된 '도르트 신경'과 장로교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를 들 수 있다.

(1)17세기 신앙 고백서 특징(작성 배경과 관련하여)

(가)도르트 총회

1571년 엠덴에서 모인 총회 이후, ‘그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치권력이 약화되고, 지방 제후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 집중식 정치의 분권화는 교회의 다양화를 초래하였다. 저지대 지방으로 전파된 각종 다양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으로 인해 곳곳에서 나름대로 물려받아 세운 신학을 주장하는 개신교회의 이단 사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져 있었다.

한편, 개혁교회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어서, 알미니우스파의 논쟁 속에서 불법으로 선포되기에 이른다. 1586년부터 1618년 사이 신학적으로 혼란이 가중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볼케르트 쿠른헤르트(Dirk Vokerts Coornhert, 1522-1590)는 인문주의자로서 종교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칼빈의 예정론을 공격하였다. 웨텐보가에르트, 포피우스, 헤르베르쯔, 코르비누스, 타우리누스, 폰델 등이 쿠른헤르트와 의견을 같이 하게 되어 이들은 차츰 그룹으로 뭉치게 되었고, 정치가 올덴바르네벨트의 지원을 얻게 되었다. 예정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 때 개혁교회는 알미니우스로 하여금 쿠른헤르트의 공격에 대항하여 예정론을 옹호할 것을 명하였는데, 알미니우스는 문제를 연구하면서 예정론을 부인하는 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

알미니우스의 배후에는 올덴바르네벨트라는 정치가가 버티고 있었다. 그는 항의파(항론파)들의 편에 서서, 신학적인 관용과 종교적인 아량을 베풀라고 호소하였다.

1609년 알미니우스의 사망 후, 그를 따르던 이들은 신변 안전을 보장

하도록 국회에 청원하였고, 자율롭고 합법적인 총회 소집 문제로 인해 '항론파'와 '반항론파'가 나뉘게 되었다. 이 때 올덴바르네벨트가 독자노선을 천명(1617)하자 중앙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오렌지 공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알미니우스 사후, 라이덴 대학은 '항론파'가 우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유트레흐트, 젤더스, 오베리에셀 등 여러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미니우스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606년 알미니우스파는 전국 총회를 소집하여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갱신하자는 청원을 세속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고마루스를 비롯한 칼빈주의자들은 전국적인 총회의 소집 여부 마저도 칼빈의 주장처럼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기독교회의 모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알미니우스파의 청원은 기각되었다.⁴³⁾

1615년에 일부 목사들은 비밀교회회의를 조직할 것과 국가 주도의 교회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놓고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617년 윌리엄의 아들 왕 모리가 공개적으로 위텐보가르트가 설교자로 있는 하구에서의 궁정교회에서 예배보기를 거절함으로써 개혁교회인 칼빈주의를 찬동하고 나섰을 때에 사회는 완전히 양분되었다. 그래서 홀란드는 정치가인 올덴바르네벨트, 나머지는 모리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618년 8월 29일 마우리스가 올덴바르네벨트를 체포하자 항변파의 원리를 주장하던 여러 지도자들은 네덜란드에서 도피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모리스가 확고한 통제권을 장악하자 국가의회는 작년에 포고했던 칙령을 즉시 시행하여 전국교회회의가 1618년 11월에 도르트에서 열리게 하였던 것이다.

43)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1권』,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pp.360-366.

(내)웨스트민스터 총회⁴⁴⁾

엘리자베스 1세와 청교도들간의 노선에 대한 의견차는 결국, 청교도들로 하여금 ‘온건파’, ‘급진파’, ‘중도파’로 나뉘게 하였다. 그러나 이시기 청교도들은 장로교회 아래 모였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이 되어 제임스 1세가 되었을 때, 청교도들은 그의 신앙의 배경을 생각하고 영국 국교의 과감한 개혁을 원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이때 청교도들은 하나의 정치 당파로 결속되어 가고, 왕과 영국 국교는 청교도를 박해하기 시작하여 청교도 중 일부가 홀랜드 등지로 피난하는 경우가 있었다.

찰스 1세가 직임할 때, 청교도들의 정치적 세력은 견고해져서 1640년 청교도 장군 올리버 크롬웰의 혁명군이 집권하여 청교도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643년 7월 크롬웰은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개혁을 논의 하였는데, 이 때 모인 151명의 교역자들 대부분이 장로교 계통의 청교도들이었다.

151명의 구성을 보면, 그 중 30명은 저명한 평신도들(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이었고, 12명이 독립파, 온건한 감독파, 그리고 다수가 장로파로 이루어졌다. 의장은 트위스, 가티커, 레넬즈, 파머 등과 같이 장로제도는 성경과 일치하는 인간의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장로제도는 성경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때 장기국회를 통하여 교회개혁을 많이 이룩하였고,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청을 받아서 영국이 스코틀랜드와 동맹계약을 체결하고 영국 교회 개혁과 내전의 승리를 위한 스코틀랜드의 후원을 받았다. 장

44) 남경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pp.5-6.

기국회는 영국 국교의 공동 기도서를 폐지하고 예배 지침서를 만들어 장로교회 신학노선을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작성되어서 1646년 11월에 완성되었고 대소 요리문답도 첨부되어서 1648년 영국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회중교파와 다른 교파의 반대로 정식 통과는 보류되었다.

이 고백서는 영국 국교와 투쟁하던 때, 국왕의 군대와 청교도 군대가 싸우고 있을 때 준비된 것인데, 아일랜드 청교도들의 고백인 제임스 우셔(J.Ussher)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기초해서 교회 회의에 제출하여 수정 통과된 것이다. 이 고백은 그 후로 장로교회의 표준적인 고백이 되었으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국적인 고백이며, 아르미니우스 색채가 전혀 없는 칼빈주의적 정통주의자들이 개인적인 완전한 자유 아래서 토론하여 만든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49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신자들의 가정에 이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비치토록 하였다.

(2)조직신학적 구조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조직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작성된 것임은 구지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신학적 구조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표345)

45) 첫째 교리 이하 I로 표기. 나머지 교리도 로마 숫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각 교리의 장은 괄호 안에 숫자만 표기하기로 한다. 잘못된 교리를 배경함은 이하 ●로 표기한다. 이 표는 김의환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의 분류를 연구자가 재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도르트 신조
<p>신론 :</p> <p>①계시-Ⅲ,Ⅳ(6, 7)</p> <p>②성경-Ⅰ(3), Ⅱ(5), Ⅲ,Ⅳ(8, 17), Ⅴ(14)</p> <p>③성자-Ⅱ(4)</p> <p>④하나님의 명령과 예정Ⅰ(6, 7, 8, 9, 10, 11, 12,13, 14, 15, 16, 17, 18), Ⅱ(8, 9), Ⅰ○(1, 2, 3, 4, 5, 6, 7, 8, 9), Ⅱ○(1, 7), Ⅴ○(1)</p>
<p>인간론 :</p> <p>①타락, 원죄 그리고 형벌-Ⅰ(1), Ⅱ(1, 2), Ⅲ,Ⅳ(1, 2, 3, 4), Ⅱ○(5), Ⅲ,Ⅳ○(1, 2, 3, 4)</p> <p>②자유 의지와 무능력-Ⅱ○(3, 6)</p>
<p>기독교론 :</p> <p>①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Ⅱ(2)</p> <p>②복음의 약속-Ⅱ(5)</p>
<p>구원론 :</p> <p>①일반 은총과 외적인 부르심-Ⅲ,Ⅳ(8, 9), Ⅲ,Ⅳ○(5)</p> <p>②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Ⅲ,Ⅳ(6, 10, 11, 12, 14, 15, 16), Ⅲ,Ⅳ○(6, 7, 8, 9)</p> <p>③구원에 이르는 신앙-Ⅰ(2, 3, 4, 5, 6), Ⅱ(6, 7), Ⅲ,Ⅳ(13, 14) 46)</p> <p>④칭의-Ⅱ(3), Ⅱ○(4)</p> <p>⑤성화-Ⅰ(13), Ⅴ(13)</p> <p>⑥양자-Ⅴ(6)</p> <p>⑦회개 그리고 변화-Ⅴ(7)</p> <p>⑧선행-Ⅴ(12)</p> <p>⑨인내-Ⅰ(11), Ⅰ○(6), Ⅱ(9), Ⅴ(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Ⅴ○(1, 2, 3, 4, 5, 6, 7, 8, 9)</p> <p>⑩보증-Ⅰ(12), Ⅰ○(8), Ⅴ(9, 10, 11, 13), Ⅴ○(5, 6)</p> <p>⑪하나님의 율법-Ⅲ,Ⅳ(5)</p>
<p>교회론 :</p> <p>①은혜의 수단(말씀과 성례)-Ⅲ,Ⅳ(17), Ⅴ(14)</p>
<p>종말론 :</p>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분류는 다음의 분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⁴⁷⁾

46) 이 부분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원저인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에는 없는 부분으로 김의환 박사에게 의해 번역된 부분이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위의 책 pp. 94-96을 참고하여 보라.

47) 남경운, op. cit., pp. 10-12.

구분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서론	1장 성경론:1-10항	성경:1-6문	1-3문
신론	2장 삼위일체:1-3항	삼위일체:7-11문	4-6문
	3장 작정(예정):1-8항	작정:12-13문	7-8문
	4장 창조:1-2항	창조:14-17문	8-10문
	5장 섭리:1-7항	섭리:18-20문	11-12문
인간론	6장 타락, 죄와 형벌:1-6항	타락,죄:21-29문	13-19문
	7장 은혜언약:1-6항	언약:30-35문	20문
기독교론	8장 중보 그리스도:1-8항	그리스도36-57문	21-28문
성령론	9장 자유의지:1-5항	자유의지:149-152문	82-84문
	10장 소명:1-4항	소명:58-61, 67-68문	29-32문
	11장 칭의:1-6항	칭의:70-73문	33문
	12장 양자:1항	양자:74문	34문
	13장 성화:1-3항	성화:75,77-78문	35-36문
	14장 신앙:1-3항	신앙:153,72-73문	85-86문
	15장 회개:1-6항	회개:76문	87문
	16장 선행:1-7항	선행:87문	×
	17장 견인:1-3항	견인:79-81문	×
	18장 구원의 확신:1-4항	확신:80-81	39-107문

	성도의 삶19장 율법:1-7항	일반적율법91-96문	39-41문
		십계명:98-152문	41-84문
	20장 자유:1-4항	자유:×	×
	21장 예배와 안식일 1-8항	구원유익:153-196문	86-107문
		서론:153-154문	86-88문
		말씀:155-160문	89-90문
		기도:178-186문	89-90문
		주기도문:187-196문	91-107문
	22장 맹세와 서원:1-7항	맹세,서원:×	×
	23장 국가의 위정자:1-4항	국가,위정자:×	×
	24장 결혼과 이혼:1-6항	결혼,이혼:×	×
교회론	25장 교회:1-6항	교회:61-66,69문	×
	26장 성도의 교제(1-3항)	성도의 교제:65-66, 69, 82-83, 86, 90문	36-38문
	27장 성례:1-5항	성례:161-164문	91-93문
		말씀:153-160문	88-90문
	28장 세례:1-7항	세례:165-167문	94-95문
	29장 주의만찬:1-8항	성찬:168-177문	96-98문
	30장 교회의 권리	권징:×	×
	31장 대회와 총회:1-4항	대회, 총회:×	×
종말론	32장 죽음과 부활(1-3항)	영화:82-86문	37-
		부활:84-85,87-88문	38문
	33장 최후심판:1-3항	심판:88-90문	38문

(3)삼위일체 존재론적 구조속에 '예정'의 강조

도르트 신경의 경우 유기의 원인에 대한 규명 문제로 알미니안 주의와 논쟁하게 된다.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을 죄의 원으로 돌린다. 반면 반항론파의 경우 '타락전 선택'론자든, '타락후 선택'론자든 불신앙과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맞선다. 그러나 항론파의 경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기자'는 예정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고 반박한다.⁴⁸⁾ 이러한 반박에 대해 신조는 로마서 9:18의 말씀으로 반박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롬9:18).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이중예정의 대한 답은 되지만, '유기의 원인'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한다. 따라서 유기의 원인에 대해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구약의 바로의 마음이 완강케 된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고 기록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일을 걱정하심에 있어서, 그 대상의 의지를 대상의 자유한 의지를 사용하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유기의 예정과 죄의 작정만이 있을 따름 이라는 사실이다.⁴⁹⁾

결국 도르트 신조는 유기의 예정에 대해 궁극적으로 신론에서 사려하고

48) “하나님은 오로지 그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그 누구도 아담의 타락에 빠져 죄의 상태에 놓임으로 저주를 받게 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하나님과 은혜로운 사귄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도 않으셨다”(항론파의 잘못된 진술 제 1 조 8 절).

49) 신원균, op. cit., p.122.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알미니우스의 예지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모두 거부하였으나 ‘타락 전 선택’이나 ‘타락 후 선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타락 후 선택설’을 지지하였으므로, 도르트 신조의 공식적 입장은 ‘타락 후 선택설’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고마루스(F. Gomarus)나 마코비우스(Maccovius)는 ‘타락 전 선택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남부 화란의 오베리셀(Oversel) 그리고 프리슬란드에서 온 대표자들은 이 문제를 결정치 말고, 양자간 모두를 만족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선호하였다.⁵⁰⁾

양자간에는 서로 강점이 존재하는데, ‘타락 전 선택’의 강점은 ‘타락 후 선택’의 “은혜와 공의”에 비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있다. 전자와 후자가 모두 유기자는 자기 자신의 죄가 그의 저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하나(인간론), ‘타락 전 선택설’론자는 유기자의 궁극적인 원인은 타락에 선행하는 ‘은밀한 신적 작정’(신론)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신학자들이 때때로 강력한 표현들을 사용했다.⁵¹⁾⁵²⁾

(4)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

50) Ibid, II, p. 123.

51) Ibid, II, p. 127.

52) 루이스 벌콕은 도르트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같이 타락 후 선택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진술했고, 바빙크는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전택설과 후택설 어느 한쪽을 결정하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김영규 교수는 바빙크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웨민 제3장 6항에서 표현된 것은 분명히 선택의 대상이 타락한 인간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신원균, 각주183 재인용.

은 구원의 복이 적용되는 그 순서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통상 ‘구원의 서정’(Ordo Salutis)라고 부르며, 종교 개혁의 산물로 개혁신학의 유산임을 앞서 이야기 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론적인 협력이나 공로사상을 배제한다. 이러한 개혁주의의 입장은 구원의 서정이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에 둔다는 의미가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학의 구원의 서정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지위, 즉 율법과의 관계에 의존하며,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근거로 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력을 전제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전제되고 이다. 이 때문에 구원의 서정에서의 각 항목마다 하나님의 역사(은혜)를 배제하지 않으며, 구속 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칭의’는 논리적으로 우선하며, 중생이 회심보다 선행한다는 것이다⁵³⁾. 특히 구원의 서정 전체가 예정론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선행 부분에 있어서 “선행은 참되고 살아가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이다”라고 하는데,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의 열매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⁴⁾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의해 성경의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어떤 선한 의도를 가 장하여 고안해낸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한다. 특히 일반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조차 거절하고 있는 것은 웨민의 중요한 특징이다.⁵⁵⁾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은 신앙의 궁극적인 확신을 갖을 수 없다고 주장

53) 루이스 벌콕, *op. cit.*, pp.663-664.

54) 신원균, *op. cit.* p.173.

55) *Ibid.*

함으로 이것을 깨뜨렸다. 또한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라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적 확증이나 경험을 단편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더욱더 인간적인 구원 방식으로 치달으게 되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인간으로 부터의 확신이 아닌 진리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장 분명한 확신으로 제시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명확히 했다.⁵⁶⁾

제4절 16, 7세기 신앙고백서

(1) 연속성과 통일성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16, 7세기 신앙고백 사이에 통일성과 연속성의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신론적 사고’이다. 16세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신앙고백서의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음을 논증하였다. 우리가 형식적인 분류로 보았을 때는 과연 그런가? 하고 질문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면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17세기 신앙고백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따라서 양자간에는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통일성이다. 이 내용역시 신론적 사고에서 이해할 때, 이해가 빠를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이 놓치지 않고자 하였던 것은 계시자가 누구인가? 이다. 그들의

56) Ibid.

중심에는 계시를 받는 이들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하신 이가 누구인가였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들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 증명하였던 것이며,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에 대해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는 철저히 택자구원⁵⁷⁾이며, 예정에 있어서도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인간의 공로사상이 배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6세기에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주의였던 것이, 17세기에 와서는 알미니우스주의 와의 논쟁을 통해 ‘신인협력사상’이나, 구원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인간에게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히 배격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개혁주의 성경관으로 제시될 수 있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이다. 이러한 성경해석관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오직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영적인 모든 대적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⁸⁾

(2)16, 7세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16, 17세기 신앙고백서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아

57) 도르트회의 때 모인 성직자들 모두가 동의한 부분은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 자들과 달라지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타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알미니우스주의 자들의 주장에 대해 도르트회의 성직자들은 부정하였다. 이는 중세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자들이 주장하듯 하나님의 예정 안에 구원의 방편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하는 방식을 예정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음을 보는 것이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 51.

58) 신원균, op. cit., p.150.

래 차이점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은 내용에 있어서 그 정신이 그대로 전해지고, 또 전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속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17세기의 신앙고백이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임을 볼 수 있다.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있어서도, 16세기의 신앙고백서들은 대적자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의 내용을 들어내는 것에 충실하였는데, 17세기에 와서 알미니우스주의를 대적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그들의 논거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구원의 서정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루터주의적이고 알미니안적 ‘보편구원설’을 철저히 배격한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령에 의한 부르심과 중생을 고백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배와 정치 부분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는 약간 벗어난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⁵⁹⁾

제3장 결론

제1절 본론에 대한 요약

5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기 원한다면 다음을 참고하라: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 정신(21세기를 대비한 개혁 교회상), 개성연 연구자료, 1998.

_____, 17세기 개혁신학, 미간논문, 1996.

남경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론』, 안양대학교, 2003.

이제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후에는 실천적 의미를 살펴본 후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16, 7세기에 작성된 신앙고백은 기존의 에큐메니컬 신조와 비교하여 매우 짜임새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직신학적 구조아래 조망되었음을 보았다. 이러한 신조는 ‘삼위일체의 통일성’,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이 잘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신조들은 종교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 이해 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신조의 내용 안에 당시 대적자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리적인 내용들이 진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신조들을 당시 시대의 결과로만 묶어 두려는 시도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며, 아둔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성경관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는 성경관으로 성경을 해석하였고, 이러한 입장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아래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16, 17세기 신앙고백서에 대한 비교에서 양자간에는 기본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조직신학적 체계나 분류에 있어서 17세기 신앙고백서가 앞선 시대의 신앙고백에 비해 조금 더 진보되었음을 밝혔다.

제2절 실천적 의미

16, 7세기 신앙 고백서의 비교를 통해 3가지 정도 실천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예정교리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결코 그들의 ‘어떠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

이며, 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이다. 구원이 우리의 힘의 협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하나님의 통일성이 그 원인임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 인간은 겸손하게 된다.

예정의 교리와 구원의 서정, 그리고 ‘제한 속죄’의 내용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카톨릭의 교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원을 상실한다고 하여,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원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택자는 한번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신다는 내용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 쓰러진다 하여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나 선교사가 선교지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예정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경우, 선교사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전하는데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혹 열심히 땀을 흘렸으나 그 열매가 없을 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정신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⁶⁰⁾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그 삶의 현장은 마땅히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그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그는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변화여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

60) 김재선, 『예정론이 성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p.87.

고 또한 그 삶이 거룩함으로 변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신앙의 내용을 엉뚱한 것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자칫 경건의 잣대가 주중에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하였는지, 혹은 기도원에 갔는지, 내지는 금식기도를 했는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이처럼 황폐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화의 수단으로 주신 신조와 교리문답을 바르게 채택하지 않고 그 교육을 게을리 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각종 부흥을 위한 시스템이 여기 저기 소개되고 있으나 과연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고백되어 온 신앙 고백을 잘 발굴하고 철저히 교육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며, 성숙한 성도들로 인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아래 만일 교회 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Reformed)는 개혁된 신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 인위적인 것들을 창출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정력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개혁된 내용이 이 세대에 얼마나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Bibliography)

1. 국내자료

-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_____. 『기독교 강요 강독』,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 _____. 『조직신학 편람Ⅲ』,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 _____. 『17세기 개혁신학』,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0)
-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1권』,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 김홍전. 『교회에 대하여 I-IV』, (서울: 성약출판사, 2000)
- 서철원. 『교리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3)
-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995)
- 이승구. 『성령의 위로와 교회』,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上, 下』, (서울: 콘콜디아사, 1990)
- 조석만. 『조직신학 上, 下』, (서울: 도서출판 잠언, 2001)
- 최낙제. 『소요리문답 강해 I, I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2. 번역본

-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 독립개신교회교육위원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서울: 성약출판사, 2004)
- 마시다요시카즈. 『개혁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종전역, (인천: 아벨

서원, 2002)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영음사, 1999)

송종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8)

Bavinck, Herman. 『개혁주의 교의학1』, 김역규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Brown, Harold O. J. 『이단과 정통』, 라은성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1)

Berkhof, Louis.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Estep, William R.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라은성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2)

Green, James Benjamin.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김남식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7)

Heppe, Heinrich. 『개혁과 정통교의학1』, 이정석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Hodge, A.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김종흡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Klooster, Fred H.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 (서울: 여수론, 1991)

Muller, Richard A.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 이은선역 (서울: 나눔과 섬김, 2003)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Williamson, G. 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의회, 2001)

3. 원서

초판 :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Now by Authority of Parliamet sitting at Westminster, Concerning A Confession of Faith: With the Quotations and Texts of Scripture annexed. Presented by them lately to both House of Parliament, London/Edinburgb 1647*

재판 : *The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with the Larger and Lesser Catechisms, Composed by the Reverend Assembly of Divines, Sitting at Westminster,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Again Published with the Scriptures in a different Character. to which is annexed two Sheets of Church-Government with the Scriptures at large, The second Edition, London 1658.*

Beeke, Joel R. & Ferguson, Sinclair B.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Michigan; Baker Books.

G.I.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hiladelphia, 1964.

4. 학술지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보수주의 뿌리』,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신내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불변적 권위』, (서울: 신학지남)

5. 논문

- 김종교. 『도르트회의 예정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1998)
- 김재선. 『예정론이 성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2000)
- 김지곤. 『R. A Muller의 17세기 개혁신학 이해와 엄밀한 개혁주의 신학의 독특성』,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2003).
- 남경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2003)
- 신원균. 『개혁과 신조의 역사와 가치연구』, (대신대학원 대학교, 2000)
- 염경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한 개혁주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2000)
- 한유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에 따른 신학적 문제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2000)